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 제고

## Enhancement of the Roles of Physical Education to Prevent School Violence

남중웅

한국교통대학교

Joong-Woong Nam(jwnam@ut.ac.kr)

### 요약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체육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는 교육현실에도 오히려 학교체육은 소외되는 역설적 사회가 지속된 지 오래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저평가된 체육교과는 학교교과로서의 핵심적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써 체육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이 고착화된 이유는 개인적, 가정적,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인 등과 더불어 압축적 근대성장에 의한 성장제일주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고착화된 가치체계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의 수준에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체육의 가치를 통해 체육이 학교폭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가 재발견되는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학교체육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동반될 때 보다 근본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 중심어 : | 학교폭력 | 체육가치 | 스포츠클럽 | 성장제일주의 | 신자유주의 |

### Abstract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recently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clude some content on physical education classes. Physical education has long been ignored in school paradoxically in spite of the deteriorating physical strength and health of adolescents. The physical education subject undervalued in the middle of overly excessive competitions for college entrance exams finds its core goal in whole person education and officially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spects, which means that physical education claims important significance by providing diverse approaches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This study thus set out to enhance the roles of physical education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Korean society, school violence has taken deep root due to the combined results of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factors, the growth-first policy driven by compressed modern growth, and neoliberalism based on economic efficiency. School violence possesses such fixed value systems and convictions in Korean society. Education has failed to achieve some effectiveness because of the serious level of school violence, which calls for assessment of ideology having big impacts on educational environments. Given that it has been rediscovered that physical education has legitimacy of alleviating 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rough its value, an alternative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should start with physical education normalization in school. Specific alternatives including the activation of sports clubs in school will be established as more fundamental practical alternatives when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school violence-related programs and the operation of in-service training programs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 keyword : | School Violence | Value of Physical Education | Sport Club | Growth-first Policy | Neoliberalism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G00016)

##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자살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이 최근 3년 동안 2배가량 증가하였고, 학교 부적응, 가출, 자살 등을 고민하는 청소년도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8]. 한해 국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7,800여건에 달하고, 학교폭력이 자살 원인의 하나로써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성적비판 등으로 자살한 학생은 735명으로 집계된다. 학교폭력은 위험 수준을 넘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다[34]. 2012년 6월 20일 경찰청도 학교폭력을 5대 폭력 범죄로 간주하고 일진 등 불량서클에 의한 조직적, 상습적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5대 폭력범죄 척결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2년 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은폐교사 중징계’, ‘단체 활동을 통한 인성함양을 위해 체육수업 시간 50% 확대’ 방안이다. 이후 일진정보제,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17센터 개소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이런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언론에서도 ‘학교폭력과의 전쟁’으로 묘사될 정도로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경찰,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할 정도로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 환경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윤리교육, 도덕교육, 체육교육의 부재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찾는다. 윤리교육은 시작점인 가정에서 핵가족화로 가족해체현상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학교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교

육방식 전개로 소외되면서 그 역할이 상실되었다. 도덕교육과 체육교육도 윤리교육의 부재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회복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교과로서 체육교육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위기의 연속을 맞고 있다. 즉 정치논리에 수반된 성장제일주의로 인해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었고, 시장의 수월성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시행과 함께 더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체육은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자발성의 인지로 연계될 뿐 아니라 선진화된 스포츠문화 확립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8].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체육의 역할에 비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학교체육의 역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은 학교체육현장에 방향과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학교체육이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인교육이다.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학교체육의 입장에서 전인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이다. 즉 체육교과는 학교교과로서의 핵심적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35]. 따라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써 체육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의 개념적 접근과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을 가치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헌을 내용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의 역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가치적 측면과 방과 후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 교사연수,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학교폭력의 개념적 접근과 구조적 원인

### 1. 학교폭력의 개념적 접근

학교폭력은 형태, 범위,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Olweus[42]는 학교폭력을 한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부정적 행동, 즉 신체폭력과 협박, 언어폭력, 성적인 폭력, 조롱, 모욕 등으로 정의한다. Mulrine[41]은 학교폭력 장소를 기준으로 한 광의적 개념으로써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폭력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해야 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Olweus[42]의 정의를 참고하여 학교폭력을 고의적 괴롭힘과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폭력, 신체폭행이나 집단적 폭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0][28].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학교폭력이 개인적인 분노와 공격성 표출의 한 형태로서 대인간에 이루어지는 우발적, 의도적 행위로서 조직범죄, 마약, 총기사용 등과 같은 사회문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인해 집단 따돌림과는 달리 분류하고 있다[32]. 외국의 학교폭력 정의에서 범위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와는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제시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폭력의 위험요인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단일한 요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즉 개인의 특성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사회적 환경, 미디어의 역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결과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사후의 대처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결국 가정, 학교,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위험요인을 요인별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요인을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요인이다.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이 대표적이다[6]. 성별과 연령에 따라 폭력의 형태와 가해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내적으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서도 관계가 있다[17].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성격이나 상황 판단력, 가치관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요인으로 개인의 가족환경에 따라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부모의 성향이나 부모의 유무 등도 중요한 부분이며, 부모에게 학대당한 아동은 더욱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라고 권은주[3]는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형태에 따라 성향이 달라지며 특히 빈곤 역시 학교폭력 피해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31]. 결국 가정환경에서 표출되는 양육의 형태와 방법, 경제적 환경 등은 학교폭력의 위험요인으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정도가 사회적인 것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낮게 보이는 것이다.

셋째, 학교요인으로 교사, 또래집단에서 발생한다. 이은혜, 고윤주[27]는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은 공통적으로 친구가 적고, 자신과 유사한 유형의 친구를 사귀며, 친구관계의 질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신유림[16]도 “친구가 많을수록 학교폭력의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특히 교사의 직무와의 연관성은 물론 학생관리, 학생지도, 학생상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역할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의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와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요인으로 개인, 가정,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이다.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에 따른 선택적 수용을 통해 합리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최근 SNS의 확대와 개인 휴대전화의 발달은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과거 정보가 제한된 시기에 발생하지 않던 다양한 문제가 생성되는 것도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 학교폭력의 구조적 원인: 이데올로기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기술된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에서의 요인, 지역사회에서의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된다. 학교폭력은 관용한계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시간성에 관계없이 존재해온 교육현실의 일면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대책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고착화된 가치체계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1.1 성장제일주의

김창균과 임계령[12]은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언급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계층 간 격차가 학교폭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김창균과 임계령[12]이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아래와 같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치관의 붕괴와 금전 만능주의도 지금의 청소년들이 폭력성 및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19]. 이러한 주장들과 더불어 가정적 요인으로써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기회상실, 공동체 의식 및 연대의식 결여 등

도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될 수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청소년 폭력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상대적 빈곤과 계층 차에서 오는 부모 권위의 약화, 빈곤, 교육에서의 소외, 의료 혜택 부족, 직업 및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인 열등감, 다른 계층으로서의 전환 시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포기 등의 문제를 파생시켰다.

위와 같은 현상의 이면에 자리한 추동력은 압축적 근대성장에 의한 성장제일주의가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제일주의는 우리나라 압축적 근대성장의 후유증이다. 성장제일주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정치, 경제적 문화의 하나로 속도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속도효율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관주도에 의한 산업관료주의에 의해 출발하였지만 결국 하류계층이 속도효율에 집착하는 성장제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중심의 가치로 더욱 발전된 모델(업적주의, 출세주의, 승리주의, 결과주의, 성과주의 등)을 자연스럽게 채택하게 만들었다.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적 성장에 기반을 두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를 거치게 되었고, 성장이 제일이라는 성장지상주의는 다양한 분야로 전파되어 유사 가치관을 형성시켰다. 현대스포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승리지상주의는 관주도의 성장제일주의에 근원하여 사회가 결과중심적 지배적 가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스포츠에 그대로 내면화되어 채택된 보편화된 신념인 것이다[7].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성장에서 완전한 압축풀기가 끝나지 않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육정책의 선진화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될 만큼 어려운 난제이다.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지역과 학교 간 경쟁이 서열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폭력은 위기의 연속일 뿐이다. 성장제일주의가 일반화된 교육환경에서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통합적 시각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성장제일주의는 한국의 경제수준을 선진화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가치가 최고선으로 인식된

미숙한 의식으로 학교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에 수반된 성장제일주의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평가하고, 선진화된 의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8].

## 1.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재편하면서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공교육의 생명은 보편성의 원리인데 시장 경제의 도입은 바로 그 원칙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4]. 물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가지는 유효성이 존재하지만 한계와 부작용이 유효성에 비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주체 간 또는 환경과의 갈등으로 인해 불안이 확산된다는 것이 가장 큰 폐단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주도의 교육정책은 ‘주지주의적 교육관과 신자유주의적 경제효율성[14]’ 목표 아래 기계적 인간의 양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한국의 교육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도입된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제일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밀접한 역학적 관계를 유지한다.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논리가 핵심이며, 교육정책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쟁 논리가 우선된다. 교육이 곧 시장과 경쟁인 것이다. 따라서 취약한 교육환경에서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인 경제적 효율성에만 의존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8].

신자유주의 교육경쟁의 지속은 교육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학교폭력(school violence)과 집단 따돌림(bullying)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의 경우 부모의 불화와 같은 가정적인 요인과 더불어 입시경쟁에서의 뒤처짐과 같은 교육적인 요인, 그리고 지나치게 적은 신체활동 참여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폭력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입시위

주의 교육은 전인교육의 부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에서의 탈락은 우리 자녀들이 열등의식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32].

결국 신자유주의적 교육은 공교육을 해체하고, 교육의 사사화(私事化)를 촉진한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체육 환경이 가장 불안한 요소이다. 운동장 없는 학교가 설립되고, 체육을 하나의 교과로만 인식하는 위험한 발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5]. 신체활동을 제약하거나 시설의 확충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경쟁적 입시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이라는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체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접근은 학교폭력 이외에도 사회적 문제를 확대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체육의 사회적 전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III.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 제고

### 1. 체육의 가치 재발견

학교폭력과 체육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접근한 연구는 스펙트럼의 범위가 좁은 편이지만 스포츠에 내면화된 다양한 가치를 통해 양자 간의 관계적 설명이 가능하다. Lipsky[39]는 스포츠 경기를 성공, 경쟁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적합한 태도를 학습시켜 전체 사회의 정치·사회적 가치체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Geertz[38]은 스포츠가 사회학적으로 중요시되는 문화적 가치, 신분체계 및 기타 문화적 측면을 조망해 줄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해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즉 스포츠가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사회문화적 가치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사회체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2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안에 그림으로 제시된 체육활동의 기여를 문장으로 간단히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체육활동은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긍정

적 사고, 자아존중감, 집중력 등을 강화시키는 반면에 자기과피 행동, 불안 및 분노, 수업방해 행동 등은 저하시켜 결국 바른 인성 함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체육과 학교폭력 간 이론적 관계는 스포츠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가치로 종합하여 접근된다. 특히 체육의 심리적 가치는 학교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역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체육의 심리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첫째, 근원적 경향성(original tendency), 즉 일정한 자극에 반응하는 독특한 경향성으로써 공격성을 정화시켜 도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촉진시켜 불안 및 우울 증세를 완화시킨다. 셋째, 인지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노인성 정신질환, 퇴행성 정신질환 등을 예방한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증대, 집단에 순응하며 긍정적인 사고 발달,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정신 함양, 정신건강 증진, 수면의 질 개선, 그리고 생활, 여가 등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중요한 문제는 윤리교육과 도덕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성장제일주의와 신자유주의식 가치수용에 의해 소외되었듯이 체육이 학교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다. 체육의 가치를 통해 체육이 학교폭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가 재발견되는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학교체육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중학교 체육활동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체육활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했던 2012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안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스포츠강사 지원, 토요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우수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중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종목 확대, 스포츠 스타 1,000명을 명예체육교사로 위촉,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창의경영학교를 50개교로 확대 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34].

그러나 학교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체육수업시수 확대, 모든 중학생이 학교 스포츠클럽 1개 이상 가입 등 비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함으로써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체육활동 확대관련 대책의 시행은 유보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21]. 학교 스포츠클럽의 합리적 운영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것이라는 이론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교육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석훈[26]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여가의 뉴 프레임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로 운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운영과제 1로써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운영과제 2로써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운영과제 3으로써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로 전개시키고 있다. 결국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학교폭력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가. 스포츠를 통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스포츠문화 및 정신을 내면화하여 바람직한 스포츠 활동 습관 형성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스포츠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스포츠 예절교육 자료를 공유하여 다양한 내용의 스포츠 예절교육이 있음을 알게 하여 남을 배려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한다. 다. 경기 진행 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심판을 보도록 하여, 심판판정 및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라. 성인 스포츠클럽과 교류전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운영방법, 클럽 내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 어른에 대한 예절, 경기 중 에티켓, 스포츠예절 등을 배우게 된다.

자율적인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을 통합 새로운 즐거움과 학생 서로에게 배려하며 공감하는 인성과 사회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

게 한다. 따라서 학교 스포츠클럽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한 문제를 여가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과 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로 변화시킬 청소년 여가의 뉴 프레임이라 말할 수 있다[26].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 제고로서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동반될 때 보다 근본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체육교사들의 올바른 스포츠클럽 인식과 계획적 운영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불안감을 낮춰 학교폭력 방지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9]. 무엇보다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체육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연구,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상승할 수 있다. 결국 국민적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

현재 정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있다[11]. 또한 여러 교육연구가들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13][19][23][36][37]. 최근 체육활동시간을 늘이는 정책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참여는 학교폭력,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예방책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질을 높여 줌으로써 보람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는 학생들에게는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회의 행동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게 되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그러나 갑작스러운 체육수업 확대 정책은 현장에서 프로그램 부재와 인력 수급 문제 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선 대상의 구분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는데 특히 가해 청소년의 경우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적합한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11].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체육수업시간에 자행되어 온 소위 말하는 ‘아나공 수업’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제되어 수업 참여란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22]. 그러므로 New Sports의 적용, 시설에 알맞은 새로운 종목의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4.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기의 체육교사는 스포츠사회화의 중요 타자이자 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15]. 또한 교사의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이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사실[40]은 교사의 언행이 학생들의 체육교과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자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질은 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생관리 방법, 학생과의 유대감 및 배양훈련, 스트레스 관리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수하여 학생관리가 비폭력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9].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원연수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기관중심의 연수목적 설정, 획일적 참여, 비체계적인 연수과정, 부적절한 연수방법, 불공정한 연수결과의 평가, 미흡한 연수기관의 여건, 연수기회의 부족 및 유인 체제 미흡 등[2]을 개선해야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5.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확대시행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하 20% 소득계층

의 평균소득에 대비한 최고 20%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의 비율을 표시한 '5분위배율'이 1990년 3.93에서 2010년 6.02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득수준의 양극화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심화에 있다. 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할수록 전문서비스와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33].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구조에서 소외되고 억압받아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 정신적 빈곤 등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없다[29]. 저소득가정의 경제적인 부족과 생활환경의 문제,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 문제, 심리적 문제 등은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역기능적 영향을 초래하고, 자녀 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24]. 김창근과 임계령[12]은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수준의 양극화를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수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태권도, 축구, 수영, 탁구, 검도 등 스포츠종목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여가선용 및 관람스포츠, 참여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문화, 스포츠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문화, 스포츠생활의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스포츠바우처이다.”[24]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확대 시행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심리적 특성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내재적인 풍요로움, 자아표현, 규칙과 규범의 통제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절제력과 책임감,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24]. 다시 말해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IV. 결론

학교폭력은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넘어 다양한 원인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시간성을 초월하여 존재해 왔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다양한 해결방안은 제시되어 왔으나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체육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는 교육현실에도 오히려 학교체육은 소외되는 역설적 사회가 지속된 지 오래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저평가된 체육교과는 학교교과로서의 핵심적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써 체육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수용된 내용, 즉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이 고착화된 이유는 개인적, 가정적,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인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면 압축적 근대성장에 의한 성장제일주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고착화된 가치체계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의 수준에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데올로기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체육의 가치를 통해 체육이 학교폭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가 재발견되는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학교체육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바우처 사업 확대 시행 등이 동반될 때 보다 근본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나경, 변해심,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바우처 참가와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인식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인과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6권, pp.881-898, 2011.
- [2] 고완태, *교구의 현직교육 평가 모형 연구*, 미간행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3] 권은주,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78.
- [4] 김기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어떻게 대할까, 월간 초등우리교육*. 서울: 우리교육, 1998.
- [5] 김동규, 구장본, “신자유주의 학교체육의 전개양상과 대응과제”,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3호, pp.33-43, 2003.
- [6] 김선애,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1호, pp.101-126, 2007.
- [7] 김영갑, 구장본, “건강제일주의 이해를 위한 선행변수들: 압축적 근대성장, 가족이념, 매스미디어”,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4권, 제1호, pp.215-225, 2006.
- [8] 김영갑, 김기홍, “한국 스포츠문화의 현실과 과제: 학교체육”,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8권, 제1호, pp.241-252, 2010.
- [9] 김용석, “학교 폭력 예방에 있어 여가 레크리에이션의 역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pp.77-82, 2012.
- [10] 김준호,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청소년폭력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9-29, 1997.
- [11] 김지영, 정정숙,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제발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8호, pp.141-159, 2011.
- [12] 김창군, 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권, pp.173-198, 2010.
- [13] 도기봉,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또래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2권, 제2호, pp.127-147, 2006.
- [14] 박명기, “학교체육의 현주소와 정책 과제”, 스포츠과학, 제106호, pp.2-10, 2009.
- [15] 박소영, 이근모, “체육교사의 폭력적 언행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체육교과 태도 및 체육수업 이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4호, pp.755-770, 2008.
- [16] 신유림,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아동학회지, 제28권, 제5호, pp.193-207, 2007.
- [17] 신중순, *고등학교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1991.
- [18] 안용성, “학교폭력 청소년상담 3년새 2배 늘었다”, 세계일보, 10면, 2012, 6. 15.
- [19] 양야기, 이정숙,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4호, pp.369-378, 2009.
- [20] 유광욱, 원유병, “생활체육참여 정도 관련변인과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pp.97-113, 2008.
- [21] 유성렬, “학교폭력에 대한 단상”, 청소년문화포럼, 제30호, pp.165-169, 2012.
- [22] 유정애, *체육수업비평*, 서울: 무지개사, 2003.
- [23] 유평수, “중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2호, pp.51-76, 2005.
- [24] 윤정욱, 문용, 주성택,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스포츠바우처 참가와 셀프리더십간에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한국

체육학회지, 제50권, 제6호, pp.75-89, 2011.

[25] 이건순, *저소득층 청소년의 문화바우처 이용체  
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2010.

[26] 이석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여가의  
뉴 프레임; 학교스포츠클럽”, 한국여가레크리에  
이션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pp.31-38, 2012.

[27] 이은해, 고윤주,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제24권, 제4  
호, pp.1-16, 2004.

[28] 이춘화, *청소년 폭력에 관한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29] 이혜경,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지 및 임  
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미  
간행박사학위논문, 2007.

[30] 정주연,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운영실태에 대  
한 연구: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2011.

[31] 정하은, 전종설,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pp.195-212,  
2012.

[32] 조남기, “올바른 스포츠 문화의 부재, 학교폭력  
의 방관입니다”, 한국체육철학회, 2012년 한국체  
육철학회 하계학술대회, 체육·무용의 사회철학적  
탐색(pp.17-29), 서울: 한국체육철학회, 2012.

[33] 조동근, “신자유주의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월간 경영계, 제394호, pp.50-51, 2012.

[34] 최성훈, “학교폭력예방에 있어서 여가레크리에  
이션의 역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  
미나자료집, pp.17-27, 2012.

[35] 최의창, “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탐색-현  
황, 동향,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4권,  
제4호, pp.1-23, 2007.

[36] 허승희, 최태진, “초등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집  
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효과; 가해 성향 아  
동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175-197, 2008.

[37] 허승희, 최태진, 박성미, “초등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효과; 피해  
성향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제30권, 제1  
호, pp.149-163, 2009.

[38] C. Geertz, “Deep play: Notes on the balinese  
cockfight,” *Daedalus*, pp.1-35, 1972.

[39] R. Lipsky, “Toward political theory of  
American sports symbolism,”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21, No.3, pp.345-360,  
1978.

[40] M. D. Luke and G. D. Sinclair,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Vol.11, pp.31-46, 1991.

[41] C. Mulrine, “*Survey course on the effect of  
violence in educational settings*,” Montana  
University Press, 1996.

[42] D. Olweus, “*Bull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lackwell Publishers:  
Oxford, 1993.

[43] S. S. Horn, “Adolescents’ reasoning about  
exclusion from social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9, No.1, pp.71-84, 2003.

저 자 소 개

남 중 응(Joong-Woong Nam)

정희원



- 1985년 2월 : 경북대학교 사범대  
학 체육교육과(학사)
- 2002년 2월 : 영남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4년 4월 ~ 현재 : 한국교통  
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 2007년 11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연  
구소 소장 / 세계무술아카데미 원장

<관심분야> : 스포츠철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산업